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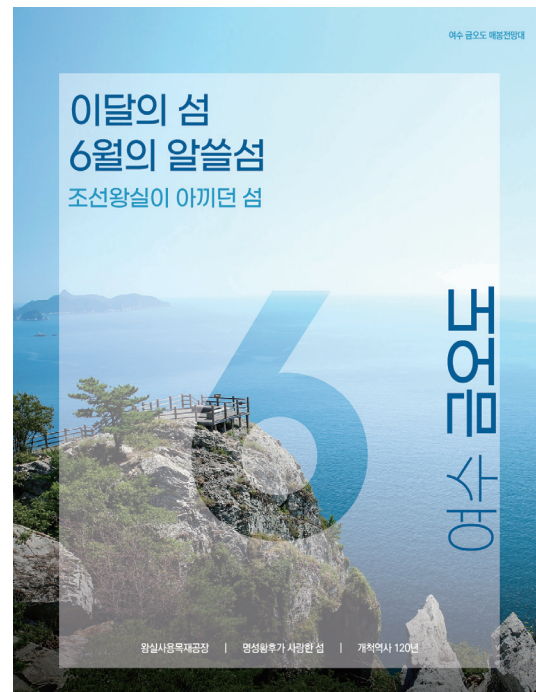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달의 섬 이야기

국내 섬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한국섬진흥원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매월 '이달의 섬'을 선정·홍보하고 있습니다. 섬 전문가의 자문과 섬이 있는 36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를 진행, 이달의 섬을 선정하는데요. 최종 선정된 섬은 '찾아가는 섬 현장 포럼', '한섬원아카데미 현장 탐방', '섬 둘레길 사업' 등 한국섬진흥원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기도 한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달의 섬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릴게요!



### 조선 왕실이 아끼던 거무섬, 금오도

금오도는 나무가 많고 울창해서 섬 전체가 검게 보여서 '거무섬'으로 불렸고 조선시대 왕실이 아끼던 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금오도에는 왕실에서 사용하는 중요 목재인 소나무가 많아 조선 왕실에서 금오도를 황장봉산(왕실사용목재공장)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 오래된 섬, 고대도 그리고 오랜 인연 칼 귀츨라프

고대도는 섬에 옛 집터가 많이 남아있어 고대도(古代島)라고 불립니다. 고대도는 최초의 개신교 선교가 이루어진 섬인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알려진 '칼 귀츨라프'가 고대도에 정착하고 전도한 달이 1832년 7월이에요. 그래서 매년 7월이면 기념행사가 열린답니다.

## 8월의 알쓸섬

# 8월 군산 선유도

# 2022년 제3회 섬의 날 개최지  
# 이순신장군, 12일간의 휴식처



### 풍랑을 피해 잠시 휴식을 취하는 섬, 선유도

여러 섬이 가까이 붙어 있어 군산도라 불렸으며 조운선이 순풍을 기다리던 피난처로도, 군사적 요충지로 중요한 섬, 선유도. 지금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선유도에서 잠깐의 쉼을 찾아보면 어떨까요?